

# 북한이탈 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태도

전 정 희<sup>1)</sup> · 이 인 숙<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 주민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연간 1,500여명이 입국을 하고, 성별 입국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잠정 현황으로도 77%가 여성 입국자이다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이렇게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며 북한이탈 주민의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나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검진자의 20%는 결핵, B형 간염, 성병, 부인과 질환을 진단받았고, 연령에 따라서 30대는 B형 간염과 부인과 질환이 높았고, 20대는 결핵과 성병 감염률이 높게 나타났다(Ahn, 2007). 또한 Han, Koo와 Oh(2010)는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은 매우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 입국자 중 20-40대의 가입기 여성비율이 70% 이상이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북한이탈과정 중 강제 혼인을 당하거나, 우발적인 성폭행을 당하는 등 성적 위협에 처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성적 어려움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게 하고 이는 한국 정착과정에서 여러 방면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탈 여성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배란

장애 기능성 출혈을 경험하고, 피임을 위해 루프를 삽입한 여성들이 적절한 관리 부족으로 많은 여성들이 질염에 노출되어 있다(Jang, 2010). 또한 부인과 질환으로 건강과 출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Lee, 2006), 더욱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거나, 적응 과정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성적 경험들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주 여성들의 성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이주민들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할 확률이 더 높았고, 여러 명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등 위험부담이 큰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Jung, 2012). 탈북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뤄지는 성폭력 현실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및 교육이 필요하고 성관련 문제의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hin, 2013).

한편, 매년 약 53만 명의 여성이 새로이 진단받는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여성암의 15%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악성종양 중 2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사이 발생률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세포진 검사 수검률 증가와 이를 통한 조기 진단에 따른 남한 여성에 국한된 결과이며,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보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백신접종이 현재 자궁경부암 발병을 저하시키는 효과적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은 암 예방

주요어 : 자궁경부암, 지식, 태도, 북한이탈여성

1) 통일부 하나원, 사무관

2)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is2009@hnu.kr)

투고일: 2016년 10월 6일 수정일: 2016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29일

행위 의도와 예방 접종 수용도를 향상시켜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Dursun, Altuntas, Kuscü, & Ayhan, 2009; Ferris et al., 2009; Kim & Park, 2009; Lee, 2009; Stark, Gregoire, Pilarski, Zarbo, & Gaba, 2008).

북한이탈 여성에게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예방에 대한 지식은 자궁경부암 및 부인과 질병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과 예방접종 태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북한이탈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교육과 성건강 교육에 앞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사정하여 이들의 건강 교육 및 향후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호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고 예방태도를 파악하는 연구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탈 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성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북한이탈 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한다.
- 셋째, 북한이탈 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태도를 파악한다.
- 넷째, 북한이탈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다섯째,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고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태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교육원에 등록된 교육생으로서 입국한지 3개월 미만

의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북한 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Faul, Erdfeler, Lang, & Buchner, 2007),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0, 검정력 0.95 조건에서 최소 134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3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경력 20년 이상의 하나원 간호사와 의사 및 간호대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전 북한이탈 여성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내용과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 ● 자궁경부암 지식

자궁경부암 지식은 Kim과 Park(2009)이 개발하고 Kwon(2014)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을 읽고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중 선택하여 체크하게 한 후,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른다는 경우 0점 처리하였다. 역문항은 환산하여 정답인 경우 1점, 오답과 모른다는 경우 0점을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최대 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이분문항 신뢰도 추정공식에 따라 Kuder and Richardson Formula 20(K-R 20) =.62였고,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지식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지식은 Kim과 Ahn(2007)이 개발하고, Kwon(2014)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을 읽고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체크하게 한 후, 역문항은 환산하여 정답인 경우 1점, 오답과 모른다는 경우 0점을 처리하였다. 도구의 범위는 0점에서 최대 1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won(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Kuder and Richardson Formula 20(K-R 20)=.6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태도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태도는 Kwon(2014)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행위 의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안전한

성관계, 피임, 암 예방 생활에 대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은 .87이었다.

###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과 연구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확률 편의 표출하였다. (사) 새조위(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함 모임) 교육원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동의를 구하고, 교육 담당자에게 설문 조사에 대한 수집에 협조를 얻어, 기관에 등록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가 가능한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와 함께 교육 담당자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중단 등에 대한 설명이 첨부된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또한 문항 이해에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여 설문 중간이라도 설명을 하였다. 설문을 마친 후에는 연구자가 곧바로 회수하였으며, 전체 140부 중에서 문항이 누락된 자료 및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30부를 수집하였다.

###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에 앞서서 H대학교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15-03-02-0925)을 받은 후, 본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역시 연구의 목적, 설문방법, 설문조사의 익명성, 연구철회 및 중단, 수집된 자료 보관 및 파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 연구변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수의 차이는 각각 t-test 혹은 ANOVA,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다.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 주요 연구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5.74세로 29세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33.1%, 30대가 31.5%, 40대가 24.6%였으며, 50대 이상이 10.8%였다. 남한입국까지 소요된 기간은 5년 이상인 대상자가 32.3%였고, 6개월 미만인 30.8%, 6개월 이상 1년 미만 17.7%였다. 대상자의 76.7%는 고등중학교(남한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였으며, 전문대학 졸업자가 16.3%, 인민학교(남한의 초등학교) 졸업자는 7.0%였다. 대상자의 결혼 상태는 37.2%가 동거상태였으며, 기혼자로 현재 남편이 있는 경우가 24.8%, 별거 혹은 이혼한 상태가 20.2%, 미혼인 대상자는 17.8%로 조사되었다. 산과력은 유산 혹은 조산을 포함한 분만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 3회 이상인 경우 45.0%, 2회 26.4%, 전혀 없었던 대상자가 10.9%였다.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는 1.5%였고, 2명이 30.8%,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대상자가 8.5%였으며, 자녀가 없는 여성도 19.2%였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본 대상자가 전체의 66.2%였고, 69.2%의 여성은 자궁경부암 및 성병 예방에 관한 교육 경험이 있었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인지가 있는 경우가 17.7%에 불과하였다. 자궁경부암 및 성병에 대한 교육 선호도는 46.2%가 전문가 강연을, 23.8%는 일대일 면담, 23.0%는 TV나 교육책자 혹은 시청각 자료를 통한 정보제공을 선호하였다(Table 1).

### 자궁경부암 지식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 점수는 8점 만점에 2.53점이었으며, 전체 문항 정답률은 31.6%로 매우 낮은 지식수준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자궁경부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다’가 73.8%, ‘자궁경부암은 초기부터 통증이 있다’ 45.1%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자궁 경부 세포 질검사를 통한 경부암 진단 정확도는 100%이다’의 문항으로 4.6%에 불과하였으며, ‘자궁경부암은 출산과 관련있다’ 13.8%,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있다’ 20.8%로 평균 정답률보다 낮은 문항이었다. ‘자궁경부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다’,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궁암은 걸리지 않는다’, ‘자궁경부암은 18세 이전 성교시작과 관계있다’ 문항 역시 30%를 상회하는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Table 2).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지식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지식은 17점 만점에 1.67점이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Below 29	43	33.1
	30~39	41	31.5
	40~49	32	24.6
	Over 50	14	10.8
	Mean ± SD		35.74±10.53
Entry duration	Less than 6 months	40	30.8
	6 months - under 1 year	23	17.7
	1 - under 3 years	12	9.2
	3 - under 5 years	13	10.0
	Over 5 years	42	32.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	7.0
	≤High school	99	76.7
	≥College	21	16.3
Marrital status	Single	23	17.8
	Married	32	24.8
	Separation or divorce	26	20.2
	Cohabitation	48	37.2
Obstetrical history (including delivery or abortion)	0	14	10.9
	1	23	17.8
	2	34	26.4
	More than 3	58	45.0
The number of children	0	25	19.2
	1	54	41.5
	2	40	30.8
	More than 3	11	8.5
Test of cervical cancer	Yes	86	66.2
	No	44	33.8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cervical cancer & STD* prevention	Yes	90	69.2
	No	40	30.8
Precognition about HPV	Yes	23	17.7
	No	107	82.3
Education method wanted	Professional lecture	60	46.2
	1:1 interview	31	23.8
	TV or pamphlets or audiovisual education	30	23.0
	More than 2 methods	9	6.9

\*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정답률 9.81%로 10%도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의 지식을 보여주었다.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와 관련된 질환이다’ 40.0%, ‘인유두종 저위험 바이러스 감염은 성병 중 하나이다’의 문항이 34.6%였다. 반면 ‘인유두종 고위험 바이러스는 외음부 주위에 사마귀를 발생시킨다’, ‘성활동이 있는 여성은 매년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답률 0%인 문항이었으며, ‘남자에게도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먹는 약과 수술로 치료될 수 있다’, ‘인유두종 저위험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 주위에 비정상세포를 만든다’가 1.5%, ‘콘돔사용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한번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3.8%, ‘인유두종 바이러

스 중 저위험 바이러스는 경부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4.6%,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경우 제왕절개수술로 아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6.2%는 평균 정답률 이하의 매우 낮은 지식 문항이었다(Table 2).

###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태도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태도 점수는 4점 만점에 3.21점으로 비교적 적극적인 예방태도를 나타내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이다’가 3.41점으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문항이었으며, 이어 ‘성관계 상대자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성생활을 할 것이다’ 3.29점, ‘월경이 아닌 비정상적 부정출혈이 있을시 병원을 방문할 것

&lt;Table 2&gt; Knowledge on cervical cancer &amp; human papillomavirus(HPV) infection

(N=130)

	Question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Cervical Cancer	One may feel pain the early stage of the cervical cancer	45.1
	Cervical cancer is related to starting intercourse before the age of 18	33.1
	Cervical cancer can be cured if detected early	73.8
	Cancer diagnostic accuracy over the Pap smear is 100%	4.6
	Cervical cancer is associated with HPV infection	20.8
	Cervical cancer cannot be infected without sex life	33.1
	Cervical cancer is associated with childbirth	13.8
	Cervical cancer is prevalent among young women	32.3
	Total(0-6) 2.53±1.76	31.63
Human Papilloma virus(HPV) Infection	Low-risk virus of HPV does not cause cancer	4.6
	There is almost no symptoms when infected HPV	16.2
	High-risk HPV virus causes warts around the vulva	0.0
	Low-risk HPV virus makes the abnormal cells around the cervix	1.5
	Low-risk HPV infection is one of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34.6
	Human papilloma virus can cause infection in the oral cavity, respiratory tract, and the eye area	10.8
	Condom use can prevent HPV infection	3.8
	HPV is a disease associated with sex	40.0
	Men also need a test because HPV can cause genital cancers	1.5
	Once infected with HPV, it does not go away unless treatment	3.8
	If immunity is good, HPV virus gradually disappears.	16.2
	HPV is also found Pap smear	5.4
	Sexually active women need to receive HPV test every year	0.0
	Current HPV can be treated with surgery and drugs	1.5
	In the case of pregnant women are infected with HPV, a cesarean section can prevent baby infection	6.2
	HPV can be prevented with a vaccine	8.5
	The HPV infection usually occurs during middle age, menopause	12.3
	Total (0-7) 1.67±1.83	9.81

&lt;Table 3&gt; Prevention attitudes on cervical cancer &amp; human papilloma virus(HPV) infection

(N=130)

	Question	M±SD
Prevention behaviors	I will get cervical cancer screening every six months to a year after I started sex life	3.22±0.65
	I will use a condom during sexual intercourse	3.06±0.65
	I and my children will be given the HPV vaccination	3.16±0.60
	I will visit the hospital when I have an abnormal bleeding, not menstruation	3.24±0.58
	I will be treated immediately when I infect vaginitis	3.22±0.52
	I will have a safe sex life as to minimize the sexual partner	3.29±0.54
	I will be sure to consult a doctor when taking birth control pills or contraceptive treatment	3.22±0.60
	I intend to quit smoking	3.07±0.89
	I would eat plenty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3.41±0.53
		Mean ± SD
	Mean ± SD (Conversion 36 points) (17.00-36.00)	28.90±3.94

이다' 3.24점으로 높았지만,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할 것이다' 3.06점, '금연을 할 것이다'의 문항은 3.0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변수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궁경부암 지식은 남한입국까지 소요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 군이 1년에서 5년까지 소요된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F=2.76, p=.031$ ), 자녀의 수가 1명인 군이 3명

<Table 4> The Degree of knowledge and prevention attitude of cervical cancer & human papillomavirus(HPV) infe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Variables	Categories	n	Knowledge				Prevention attitude	
			Cervical Cancer		Human Papilloma virus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 (year)	Below 29	43	2.51±1.49	1.81±1.95	28.74±4.70			
	30~39	41	2.85±1.77	0.83 (482)	29.20±3.07	0.55 (652)	0.14 (933)	
	40~49	32	2.28±1.94	1.59±1.93	28.90±3.94			
	Over 50	14	2.21±2.08	2.07±1.59	28.50±4.03			
Duration before arrival (year)	Less than 0.5	40	2.20±1.42	1.28±1.43	28.46±3.71			
	0.5 - under 1	23	3.30±1.82 <sup>b</sup>	2.13±1.79	28.83±4.62	1.08 (368)	0.22 (927)	
	1-under 3	12	2.00±1.95 <sup>a</sup>	1.41±1.83	28.92±2.94			
	3-under 5	13	1.77±1.96 <sup>a</sup>	1.53±2.18	29.31±3.04			
	Over 5	42	2.81±1.76	1.90±2.05	29.21±4.35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	2.56±1.33	0.13 (876)	28.11±4.99	3.50 (173)*	0.28 (754)	
	≤High school	99	2.49±1.79	61.98	29.02±3.76			
	≥College	21	2.71±1.85	71.79	29.24±3.63			
Marital status	Single	23	2.74±1.79	75.24	28.70±5.00			
	Married	32	2.56±1.85	63.06	28.19±3.35	2.38 (497)*	0.92 (433)	
	Separation or divorce	26	2.31±1.93	64.71	29.16±3.08			
	Cohabitation	48	2.54±1.64	61.54	29.58±3.80			
Obstetrical history (including delivery or abortion)	0	14	2.36±1.60	2.00±2.18	27.14±5.04			
	1	23	3.13±1.89	1.49 (222)	29.91±3.44	0.72 (544)	1.51 (205)	
	2	34	2.68±1.80	1.97±1.96	29.06±3.33			
	More than 3	58	2.26±1.70	1.47±1.75	29.05±3.83			
The number of children	0	25	2.16±1.57	1.52±1.6	27.92±3.91			
	1	54	3.06±1.89 <sup>b</sup>	1.70±1.88	29.72±3.80	0.10 (958)	2.64 (053)	
	2	40	2.23±1.48	1.75±2.02	28.00±3.80			
	More than 3	11	1.91±1.97 <sup>a</sup>	1.55±1.29	30.45±4.32			
Test of cervical cancer	Yes	86	2.80±1.81	2.66 (009)	28.88±3.82	3.84 (<001)	-0.07 (946)	
	No	44	2.00±1.52	0.95±1.22	28.93±4.21			
Precognition about HPV	Yes	23	3.70±1.72	3.67 (<001)	28.30±2.79	4.23 (<001)	-1.02 (311)	
	No	107	2.28±1.67	1.37±1.70	29.03±4.15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cervical cancer & STD prevention	Yes	90	2.71±1.77	-1.77 (079)	28.70±3.38	-1.11 (312)	0.76 (454)	
	No	40	2.13±1.68	1.43±1.55	29.35±4.98			
Education method wanted	Professional lecture	60	2.43±1.58	1.63±1.92	29.15±3.63			
	1:1 interview	31	2.10±1.70 <sup>a</sup>	1.23±1.69	28.71±3.47	1.27 (287)	0.54 (657)	
	TV or audiovisual education or Pamphlets	30	2.77±1.96	2.77 (044)	28.30±4.48			
	More than 2_methods	9	3.89±1.90 <sup>b</sup>	2.11±1.61	30.00±5.88			

Scheffé a<b \* Kruskal-Wallis test

&lt;Table 5&gt; Correlation among knowledge and prevention attitude about cervical cancer &amp; human papillomavirus(HPV) infection

	Knowledge about HPV infection	Prevention attitude	Test of cervical cancer	Precognition about HPV
	r ( $\rho$ )	r ( $\rho$ )	r ( $\rho$ )	r ( $\rho$ )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50(<.001)	.19(.034)	.28(.013)	.31(<.001)
Knowledge about HPV infection		.02(.818)	.28(.001)	.35(<.001)
Prevention attitude			.06(.946)	.07(.427)
Test of cervical cancer				.29(.001)

이상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F=2.97, p=.034$ ).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본 군( $t=2.66, p=.009$ ),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인지 군에서 자궁경부암 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t=3.67, p<.001$ ). 또한 교육방법 선호도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적극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군이 일대일 상담을 선호하는 군보다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2.77, p=.044$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군( $t=3.84, p<.001$ ),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인지군이 유의하게 높았다( $t=4.23, p<.001$ ). 한편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궁경부암 지식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 $r=.50,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예방 태도와는 상관정도는 약했으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19, p=.034$ ).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유무( $r=.28, p=.013$ ),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r=.31, p<.001$ )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은 자궁경부암 검진유무( $r=.28, p=.001$ ),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전 인지( $r=.35, p<.001$ )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며, 자궁경부암 검진유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r=.29,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사정하고 이들을 위한 여성 건강 교육 기초자료 및 향후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북한 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 지식 수준은 총점 8점 만점에 평균 2.53점, 인유두종 바이러스 지식 수준은 총점 17점 만점

에 1.67점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Kwon(2014)의 연구에서 각각 3.74점, 5.33점, Kim과 Park(2009)의 연구에서의 3.4점, 3.2점보다도 매우 낮았다. 또한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여성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Lee, 2009)에서 자궁경부암 지식이 100점 만점에 43.4점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가 31.6점으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아본 대상자가 66.2%, 자궁경부암 및 성병예방 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9.2%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은 북한이탈 주민에게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여성건강 관련 교육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별로 살펴보면, ‘자궁경부암은 일찍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다’가 73%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자궁 경부 세포 질검사를 통한 경부암 진단 정확도는 100%이다’의 문항으로 4.6%에 불과하였으며, ‘자궁경부암은 출산과 관련 있다’가 13.8%에 그쳤다.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Choi와 Park(2012)의 연구에서 17.3%의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여준 ‘자궁경부암은 18세 이전 성교시작과 관계있다’의 문항은 본 연구에서 33.1%로 평균 정답률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Han 등(2010)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여성이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매춘, 성매매,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결과를 미루어보아 북한이탈 여성의 여성 건강을 위해서는 낮은 지식수준에 대해 간과해서 안된다. Lee(2009)의 연구에서 77.6%의 높은 정답률을 보인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 있다’의 문항은 본 연구에서 20.8%로 낮아, 지속적으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예방 접종을 하는 남한 여성들과는 다르게 대상자들이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Kim과 Choi(2014)의 연구에서 ‘자궁경부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다’의 문항은 31.3%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32.3%로 평균 정답률을 상회하는 낮은 지식 문항이었다. 이처럼 북한이탈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호발 연령층이나 경부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부분의 대상자가 모르는 상태이고, 자궁경부암 세포질 검사를 통해서 100% 진단할 수 있다고 믿는 피

상적인 지식수준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자궁경부암과 관련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노출 위험이 큰 북한이탈 대상자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도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9.8점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상자의 66.2%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대상자가 전체의 82.3%였으므로 자궁경부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인유두종 고위험 바이러스는 외음부 주위에 사마귀를 발생시킨다’와 ‘성 활동이 있는 여성은 매년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답률 0%, ‘인유두종 저위험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주위에 비정상세포를 만든다’, ‘남자에게도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생식기 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검사가 필요하다’의 문항은 1.5%에 불과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won, 2014)에서도 ‘인유두종 저위험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주위에 비정상세포를 만든다’의 문항정답률이 8.3%에 불과하여 고위험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을 모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여성에게 역시 인유두종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고위험과 저위험이라는 개념이 매우 생소했을 것이다. Choi와 Park(2012)의 연구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암 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51.8%, ‘현재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약물,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54.7%, ‘콘돔착용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 71.2%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본 연구결과 5.4%, 1.5%, 3.8%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여성에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종류와 자궁경부암 발생과의 관계, 바이러스 검진과 치료, 감염 예방법에 대해 다른 성별과 구분하여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여성이 이주과정에서 겪은 성적 트라우마 및 특히 젊은 여성들은 더 많은 성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Rhee, Ku, & Han, 2013),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통해 감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증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은 교육으로 강조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여성이 남한에서 성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성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태도는 4점 만점에 3.21점, 100점 환산시 80.25점으로 비록 같은 도구는 아니지만, Kwon(2014)의 77.5점, Lee(2009)의 75.3점보다 높아 남한의 여성보다는 비교적 적극적인 예방태도를 나타내

었다. Kwon(2014)의 연구에서는 금연과 콘돔사용에 대한 의도가 높았던 반면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질염이 있을 때 병원 방문 의도에 대한 예방행위의도가 낮아 우리나라 유교문화에 따른 병원 방문의 어려움이 여대생에게 병원 방문 장애요인이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연과 콘돔사용에 대한 문항이 가장 낮은 예방 태도 문항으로 남한의 여성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콘돔 사용의 경우 북한과 제3국 등에서 그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거나 혹은 도덕적인 견해와 실제 인지하고 있는 생각에서의 모순된 결과일 수도 있다.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흡연의 해로움과 콘돔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시키고, 건강한 습관 형성이 부인과 질염 및 성병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성병예방 및 성건강 증진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대상자들은 섭생과, 건강 문제발생시 의사와의 상의나 병원 방문 의도 행위가 높아 이들에게 올바른 암 예방 수행에 대한 교육이 선행된다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궁경부암 지식정도는 남한입국까지 소요된 기간이 3년에서 5년 미만 군의 지식이 가장 낮았으며,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군이 3명 미만의 여성보다 지식이 낮았다. 입국까지의 시일이 지체될수록 신변안전과 정착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3명 이상인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자궁경부암 검사 경험이 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인지 군에서 자궁경부암 지식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Choi & Park, 2012; Kwon, 2014)를 일부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과 교육, 사전 정보 소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결과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식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적극적인 교육 방법을 선호하는 군이 일대일 상담 선호 군보다 자궁경부암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단순한 자료 전달이나 단편적 교육보다는 책자나, 영상매체활용 및 개별적 상담을 병행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행위는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won(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학년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예방행위 의도에 대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입국까지의 기간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남한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남한 정착을 위한 교육생이라는 공통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위험하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견뎌야 하는 고통들의 우선순위는 신변안전과 남한입국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의 남한 여성들보다 비



교적 예방태도가 적극적임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특히 대상자들의 자궁경부암 지식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지식과 예방태도 및 자궁경부암검진여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상자들의 성병 지식의 향상이 콘돔 사용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수용도 향상과 같은 예방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Charakorn, Rattanasiri, Lertkhachonsuk, Thanappapasr, Chittithaworn, & Wilailak, 2011; Drummond, Mizan, Brocx, & Wright, 2011)를 지지한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였을 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증진에도 도움을 주며, 적극적인 정기검진 및 건강한 생활과 같은 예방 태도를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태도에 대해 대상자 입국소요기간, 자녀수, 자궁암 검진여부 및 정보 소지에 대해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겠다. 또한 대상자들이 원하는 교육방식을 고려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예방행위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하여 북한이탈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예방 뿐 아니라 여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과 예방태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자궁경부암 지식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은 매우 낮았지만 예방태도는 비교적 높았다. 자궁경부암 지식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지식, 예방 태도, 자궁경부암 검진유무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전 인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감염에 대한 지식이 증진되면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기초 조사가 미흡한 연구실정에 처음 시도했던 연구로서 한국사회 적응교육 및 지역사회 편입시 여성 건강 기초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자가 기입식 설문 작성의 한계점으로 인해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행위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자궁경부암과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성생활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북한이탈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과 예방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추후 부부 혹은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자궁경부암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hn, M. O. (2007). Newswire. National Assembly, North Korean defectors serious health condition. [Internet]. Seoul : Korea Newswire; 2007 September 28 [cited 2016 August 18]. [about 1 screens]. Available from: <http://www.newswire.co.kr/?md=A10&act=article&no=5109>
- Charakorn, C., Rattanasiri, S., Lertkhachonsuk, A. A., Thanappapasr, D., Chittithaworn, S., & Wilailak, S. (2011). Knowledge of Pap smear, HPV and the HPV vaccine and the acceptability of the HPV vaccine by Thai women. *Asia-Pacific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7(2), 160-167.
- Choi, S., & Park, M. (2012). Knowledge about cervical cancer and health beliefs on HPV vaccina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 Data Analysis Society*, 14(3), 1399-1410.
- Drummond, P. D., Mizan, A., Brocx, K., & Wright, B. (2011). Using peer education to increase sexual health knowledge among West African refugees in Western Australi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2(3), 190-205.
- Dursun, P., Altuntas, B., Kuscü, E., & Ayhan, A. (2009). Women's knowledge about human papillomavirus and their acceptance of HPV vaccin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49(2), 202-206.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Ferris, D. G., Waller, J. L., Miller, J., Patel, P., Price, G. A., Jackson, L., & Courtesia, W. (2009). Variables associated with human papillomavirus (HPV) vaccine acceptance by me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Medicine*, 22(1), 34-42.
- Han, I. Y., Koo H. J., & Oh, S. K. (2010). A study on sex knowledge among north Korean femal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1), 87-102.
- Jang, Y. H. (2010) <Defectors 2 million people age> ④“both physically and mentally sick.” Yonhap news agency. 2010. October 6 [cited 2016 August 18]. [about 1 screens]. Available from: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9/27/0511000000AKR20100927186400014.HTML>
- Jung, M. (2012). Immigrant workers' knowledge of HIV/AIDS and their sexual risk behaviors: a respondent-driven sampling survey in South Korea. *Sexuality and disability*, 30(2), 199-208.
- Kim, H. W., & Ahn, H. Y. (2007). Study on the knowledge of

- human papilloma viru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1), 13-20.
- Kim, J. H. & Park, M. K.(2009). Study on the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and human papillomavirus and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225-231.
- Kim, S. Y., & Choi, S. Y.(2014). Knowledge and Health Beliefs about Cervical Cancer among Husbands Married to Immigrant Women. *Asian Oncology Nursing*, 14(3), 173-181.
- Kwon, Y. E.(2014). *Knowledge on cervical cancer &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Lee, K. A. (2006).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women migrants: focusing on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Women*, 45(1), 191-234.
- Lee, S. H.(2009).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level and cancer-prevention performance in anti cancer vaccine of Human Papillomavirus(HPV) and cervical cancer in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National Cancer Center. Annual report of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 2013,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5 December. Report No. : 11-1352000-000145-10
-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2016 North Korean defectors status [Internet]. Seoul: Unikorea; 2016 [cited 2016 August 18]. Available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 Rhee, Y. S., Ku, H. W., & Han, I. Y.(2013). Factors Related to Female Sexual Dysfunction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0(2), 55-69.
- Shin, Y. D.(2013). *North Korean refugee women's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Surve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Stark, A., Gregoire, L., Pilarski, R., Zarbo, A., & Gaba, A.(2008). Lancaster WD. Human papillomavirus, cervical cancer and women's knowledge. *Cancer Detection and Prevention*, 32(1), 15-22.

# Knowledge and prevention Attitude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regarding cervical cancer and human papillomavirus infection

Jeon, Jung Hee<sup>1)</sup> · Lee, In Sook<sup>2)</sup>

1) Chief Official, Hanawon, Ministry of Unification

2)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nd prevention attitudes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regarding cervical cancer and human papillomavirus(HPV) infection.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5 to March 2016 and 130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participa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Results:** Score on knowledge and prevention attitudes regarding cervical cancer and HPV were 2.53 out of 8 points, 1.67 out of 17 points, and 28.90 out of 36 poi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ntry duration, the number of children, previous cervical cancer tests, Precognition about HPV, preferred education method, and knowledge of cervical canc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vious cervical cancer tests, Precognition about HPV and knowledge of HPV.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prevention attitudes regarding cervical cancer and HPV was significant positive. **Conclusio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knowledge level of cervical cancer and HPV is very low. However, their attitudes towards prevention was higher. These results imply a need for education, aimed at guiding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so as to enhance their knowledge regarding cervical cancer and HPV, and to promote their sexual health.

**Key words :** Uterine Cervical Dysplasia, Knowledge, Attitude, Refug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In Sook

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461-6, Jeonmin-dong, Yuseon-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629-8806 Fax: 82-42-629-8806 E-mail: is2009@hnu.kr